#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WATCH US RISE

가제 : 잘 봐, 우리가 무엇을 해내는지!

저자 : Renee Watson & Ellen Hagen

출판사: Bloomsbury YA

발행일: 2019년 2월 21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수상 작가 르네 왓슨의 신간!**

*** "갓 피어난 페미니스트들을 위한 일종의 선언문. 굳은 의지를 가진 두 십대가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세상을 접수할 준비를 마친 더 굳건한 여성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인상적인 이야기" – 「커커스 리뷰」**

*** "소녀들이 당당히 일어서서 재미 있게 살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주장하는 이런 이야기를 나는 평생 기다려왔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Speak』의 작가 로리 할스 앤더슨**

원래 별로 기대가 없을 때보다 뭔가 다르리라 기대했던 곳이 전혀 다르지 않을 때 실망은 훨씬 큰 법이다. 뉴욕 시, 워싱턴 하이츠에서 나름 '진보적인 학교'라는 곳에서 장애인 차별과 성차별, 인종 차별 같은 각종 차별이 일상이고 학생들도, 심지어 교사들도 그런 말이나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다면 화가 날 만하지 않을까? 시인, 배우, 가수, 디자이너까지, 열정과 아이디어가 넘치는 새싹 예술가들이자 끈끈한 우정을 자랑하는 네 명의 친구들은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않기로 결심한다. 넷 중에서도 초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닌 자매 같은 친구 첼시와 자스민을 중심으로 시작된 '여성 권익 클럽'의 활동은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고, 생각보다 큰 반발과도 맞닥뜨린다. 귀찮고 거추장스러워서 그냥 대충 넘어가자는 생각으로 대다수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문제를 날카롭게 집어내서 오직 예술만이 할 수 있는 간결하고 유쾌한 방식으로 세상에 알리는 십대 친구들의 신선한 페미니스트 운동을 그린 이 소설은 과도한 훈계보다는 이제 막 올바른 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한 아이들이 겪는 십대로서 하고 싶은 일들, 욕망과 부딪히며 겪는 갈등과 실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더 큰 친근감을 불러 일으킨다.

이제 졸업반이 된 네 친구가 제대로 뭉치게 된 계기는 자스민의 아버지가 네 친구들을 '예술운동가 무리'라는 애정 어린 별칭으로 부르며 오래 전부터 여름방학마다 '미션'을 안겨준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흑인 문화 연구센터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자스민의 아버지는 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술이 사람들로 하여금 잊고 있거나 모르고 있던 것을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늘 이야기했다. 네 아이들 모두 뛰어난 예술적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는 여름 방학이 되면 할렘 지도 한 장만 들고 역사 탐방을 하게 하거나 영화관에 가서 최신 영화가 아닌 독립 영화를 보라는 숙제를 내주곤 했다. 미션은 매번 구체적인 지시와 함께 정성 들여서 해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꼭 가져오도록 해서 넷 다 대충 시간 때우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다. 실제로 그런 활동이 네 사람의 창작 활동에 많은 영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고등학교 마지막 방학에도 숙제가 이어질 줄은 넷 다 생각지도 못했다. 개학을 한달 정도 남긴 8월, 자스민의 아버지가 말기 암 판정과 함께 살 날이 4개월밖에 없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축 쳐진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뭔가를 보여달라고 부탁하고, 얼마 후 새 학기가 시작된 학교에서 여성과 인종, 외모를 기준으로 한 은근한 멸시와 차별, 왜곡된 인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을 느낀 자스민과 첼시는 마지막 숙제를 제대로 해보자고 다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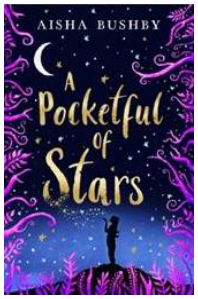
두 사람은 "여자다운 글을 써라"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만들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첼시는 농담처럼 내뱉는 차별적인 발언과 장난처럼 가볍게 이루어지는 또래 친구들과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시로 쓰고, 자스민은 체격이 크고 흑인이라는 이유로 어릴 때부터 수시로 경험해 온 차별에 관한 생각을 글로 표현한다. 시와 에세이를 업로드하는 것으로 시작된 이들의 활동은 나딘과 이삭도 힘을 보태면서 영상 제작과 게릴라 이벤트로 확대되고, 전교생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다. 여성 차별이 지금보다 훨씬 극심했던 시대에 여성의 권리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던 여성 예술가와 시민운동가들 가운데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은 것, 패션 잡지와 대중매체에서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왜곡된 관점을 고발한 글들도 큰 호응을 얻는다. 그러나 입소문을 타고 첼시와 자스민의 블로그에 순식간에 엄청난 관심이 쏠리자,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나타난다.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하는 교사들, 자신의 차별적인 언행과 행동이 드러난 것에 강한 불쾌감을 갖는 아이들이 블로그를 폐쇄시키는 것으로 보복하기 시작한 것이다. 교장 선생님까지 나서서 자스민과 첼시가 시작한 '여성 권익 클럽'에 해산 명령을 내리고 이들을 응원하는 학생들과 저지하려는 아이들 간에 갈등은 극에 달한다. 하지만, 첼시와 자스민, 그리고 친구들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자신들의 입을 틀어 막으려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줄 마음이 전혀 없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폭넓게 다루고 십대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진지하게 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의미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르네 왓슨(Renée Watson)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이자 뉴베리 명예상(Newbery Honor), 코레타 스캇 킹 어워드(Coretta Scott King Award) 수상작 『Piecing Me Together』를 쓴 작가다. 그 밖에도 『This Side of Home』, 『What Momma Left Me』 등 여러 편의 소설과 NAACP 이미지 어워드 후보에 오른 그림책 Harlem's Little Blackbird 등을 썼다.

엘렌 헤이건(Ellen Hagan)은 시인이자 작가, 교육자로 『Hemisphere』, 『Crowned』 등의 시집을 발표했다. 일본, 한국, 필리핀과 시를 교환하는 국제 프로그램 'DreamYard Project'에도 참여 중이며 아델피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작가 양성 교육에도 공동 리더를 맡고 있다.

제목 : A POCKETFUL OF STARS
가제 : 별 한줌
저자 : Aisha Bushby
출판사: Egmont
발행일: 2019년 8월 8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가족/성장소설




*** 『The Illustrated Mum』을 쓴 재클린 윌슨, 『Time Travelling With A Hamster』의 로스 웰포드, 『The Girl of Ink & Stars』의 키란 밀우드 하그레이브 팬들에게 어필할 만한 마법 같은 이야기**

가무잡잡한 올리브색 피부와 갈색 눈동자, 체격과 분위기까지 거의 쌍둥이처럼 꼭 닮은 외모와 달리 사사건건 싸우기만 하는 엄마와 딸에게 예고 없이 서글픈 불행이 찾아온다. 더 이상 마주보고 윽박지를 수도 없고, 지난 번 지지난번에 싸웠던 주제까지 다 끌어와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져 댈 수도 없는 날이 오고 말았다. 토요일이 되면 이렇게 서로 으르렁대면서도 엄마와 단둘이서 주말을 보내곤 했는데, 하필 큰 말다툼으로 처음으로 사피야가 엄마 집에 찾아가지 않은 날 엄마가 응급실로 실려갔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엄마에게 절대 먼저 사과하지 않고 화해도 안 하리라 단단히 마음먹고 친구들과 시내에서 쇼핑을 즐기던 사피야는 얼른 병원으로 오라는 아빠의 다급한 연락에 정신이 멍해진다. 13년 동안 사피야가 알고, 익숙했던 세계가 바뀐 순간이었다.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던 엄마는 그날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몇 시간에 걸쳐 뇌수술을 받았다. 아빠와 함께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사피야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수술이 일단 끝났고 오후에는 엄마를 볼 수 있다는 의사의 전화를 받는다. 불과 일주일 전에 엄마 집에서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게 싸우고 화가 나서 대문을 박차고 나와버린 뒤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은 여러모로 사피야에게 놀라웠다. 꼼짝없이 병상에 누워 숨만 쉬고 있는데도 너무나 아름답다는 사실에 처음 놀랐고, 아주 살짝 미소 짓는 얼굴로 느껴질 만큼 편안한 모습도 놀라웠다. 그 곁에 조용히 앉아 말없이 눈물만 떨구던 사피야는 이상한 목소리에 번뜻 고개를 든다. '일어나, 사피야 어서 일어나렴.' 엄마가 누워 있는 중환자실에 간호사들 외에는 말을 할 사람이 없는데, 이상한 일이었다. 갑자기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른 곳에 와 있는 기분이었다.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려주러 온 간호사의 음성에 눈을 뜬 사피야는 조금 전 들은 목소리가 꿈이었는지, 환청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 그것이 사피야의 엄마도 경험했고,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외할머니도 경험했던 신비한 마법을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라곤 그 때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수술은 다 했고, 이제 엄마가 혼수상태에서 깨어나기만을 기약없이 기다리며 병상을 지키기 시작한 사피야는 누워 있는 엄마 곁에 자리를 잡고 앉을 때마다 첫날 겪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평소 비디오 게임 광인 사피아에게는 마치 게임 속 세상이 펼쳐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저 눈을 잠깐 감았다가 다시 떴을 뿐인데, 처음 보는 집 앞에 와 있

었다. 어둑한 밤 시간이고, 머리 위에는 총총 박힌 별들이 인사라도 하는 것처럼, 심지어 사피야가 이렇게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반짝인다. 곧 사피야는 그곳이 엄마가 어린시절을 보낸 쿠웨이트의 작은 마을이라는 사실을 알아챈다. 할머니 집 대문 역시 별들처럼 사피야를 환영하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다. 활짝 열린 대문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간 사피야는 용기를 내어 현관을 들어서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신과 외모도, 성격도 똑 같은 또래 소녀를 발견한다. 바로 사피나의 엄마, 아미나였다. 엄마와는 말이 전혀 통하지도 않아서 아예 다른 별에서 온 사람 같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사피나의 눈 앞에 나타난 어린 아미나는 지금 사피나와 판박이였다. 외할머니에게 반항하고, 하고 싶은 일을 무조건 밀고 나가는 대찬 소녀였다.

사실 엄마가 쓰러진 후로 사피나는 엄마와 마지막으로 싸운 날을 계속 떠올렸다. 그 날, 사피나와 어릴 때부터 단짝인 친구 엘르는 엄마와 함께 시내 극장에 가서 연극 '라푼젤'을 관람했다. 아이들을 위한 연극인데 집을 나설 때부터 사피나와 엘르보다 더 신이 난 엄마는 막이 오르려면 30분도 더 남았는데 빨리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 있자고 고집을 부렸다. 하지만 사피나에게는 다른 볼 일이 있었다.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대규모 박람회 티켓이 연극 시작 10분 전에 온라인에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 매진되기 전에 얼른 아빠 표까지 두 장을 사야했다. 알면 불같이 화를 낼 것을 잘 알기에 그런 사정을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었다. 엄마아빠가 이혼을 한 후 아빠와 살고 있는 사피나는 일주일에 겨우 이틀 만나는 엄마와 되도록 평온한 주말을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엄마에게 이리저리 쫓기다 박람회 티켓도 놓치고, 자리에 혼자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엄마는 엘르가 보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사피나를 구박했다. 그 날 저녁, 엄마가 게임 같은 건 집어 치우고 지역 연극단에 들어가 보라는 말을 꺼낸 순간 낯부터 쌓인 두 사람의 짜증은 폭발하고 말았다. 사피나는 관심도 없는 연극을 종용하면서 게임을 이상한 취미로 취급하는 엄마에게 화가 나 모진 말을 마구 퍼부은 뒤 집을 나와버렸고 병원에서 연락을 받기 전까지 엄마와 사피나는 일주일간 서로 문자 한 통도 보내지 않았다. 사피나는 혹시라도 그 날 엄마에게 상처 주려고 한 못된 말들이 엄마가 쓰러진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한없이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했다. 꿈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지만 사피나의 눈 앞에 나타난 어린 아미나는 연극에 푹 빠져 그런 건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타박하는 외할머니에게 당당히 맞섰다. 엄마가 그토록 연극을 좋아하고, 사피나에게도 연극을 배워보라고 권한 이유가 따로 있었음을 알게 된 사피나는, 이 신기한 기억 여행을 지속하려면 '단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엄마의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단서, 엄마의 삶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물건들이 필요했다. 그렇게 엄마의 과거를 되짚어보게 된 사피나는 엄마가 떠나온 가족들, 친구들에 얽힌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특별한 감동을 주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아이샤 부쉬비(Aisha Bushby)가 쓴 「A Change is Gonna Come」은 Stripes 출판사가 매년 발행하는 흑인, 아시아인, 소수민족 단편 모음집을 통해 발표됐다. 해당 선집은 YA 도서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위 소설이 데뷔작이다.